조시현

보낸 사람: "정은정" <mssjdh@lycos.co.kr>
받는 사람: <smo48@hanmail.net>; <amsrw@chollian.net>; <shinkweon@lycos.co.kr>; <rcsd2659@chollian.net>; <wscs13@chollian.net>; <kwm1986@chollian.net>; <waprok@chollian.net>; <feminist@peacenet.or.kr>; <wowc@chollian.net>; <wma98@chollian.net>; <wmp@chollian.net>; <kcwu8@chollian.net>; <Hkwau@chollian.net>; <kawt@chollian.net>; <women@hotline.or.kr>; <kcwc21@jinbo.net>
참조: <heisoo@peacenet.or.kr>; <chungcs@plaza.snu.ac.kr>; <hexe0225@chollian.net>; <shcho@cc.sungshin.ac.kr>; <kawt@chollian.net>
보낸 날짜: 2001년 7월 27일 금요일 오후 2:30
제목: 469차수요시위경과보고

지난 7월 11일 467차 수요시위에 일어났던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의 일장기 소각 사건으로 468차부터 종로경찰서에서 수요시위를 강경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경과에 대하여는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이어 이번 주 수요일 469차 수요시위에 대한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부터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시위는 '절대불가'라고 하는 종로경찰서의 입장을 들었으나 10년동안 수요시위를 진행해온 정대협으로서는 그 위치를 이동해서 시위를 진행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본대사관 앞에 이른 정대협 차량을 경찰이 검문하였고,
연합뉴스 주차장 앞에서 내리도록 요구받았습니다.
내리자마자 한발 걸을 틈도 주지 않고 처음 도착한 정대협 실무자들을 전경이 애워싸고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매주 시위를 하던 곳에는 전경차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던 정대협 실무자 한 사람이 할머니 두분이 한국일보 앞에서 전경들에게 진압되어 있은 것을 보고 모시러 갔었으나 한국일보 앞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기에 일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오던 할머니들이나 수요시위 참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사관으로 통하는 모든 길이 봉쇄되어서 대사관 좌우 사방 30m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날은 방학이어서 초등학생을 비롯한 중,고,대학생은 물론 일본의 학생들까지 140여명이 참석한 시위였습니다.

평화시위를 보장하라는 참석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찰의 투입으로 대사관앞까지 갈 수 없었기에
갈 수 있는 최대한까지 이동하여 그곳에서 대열을 정리하여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날 시위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시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위를 하는 중에도 경찰 쪽에서는 불법 시위 운운하면서 해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위 후 평화시위, 10년의 수요시위를 저지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종로경찰서를 향하였으나 곧 저지 당하였습니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할머니 4명, 정대협 총무 등이 면담하러 종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종로 경찰서장의 변입니다.
1. 7.11날 있었던 폭력시위(폭력은 없었습니다. 과소비범국민운동본부의 일장기 소각 사건이 있었습니다.)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않되므로]
정대협과 관계없는 단체들이 시위를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
1. 한총련이나 학생들이 참여 하지 못하도록 하라.
1. 일본교과서 왜곡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 교과서 문제가 정대협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1. 피해자 할머니들과 정대협만 와서 하는 10여명의 시위라는 묵과할 수
도 있다.
위와 같이 한다면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도록 하겠다.

아니라면

2001-08-01

1. 투척의 염려가 없는 거리에서 시위를 진행하라
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일본교과서 문제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삭제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식하지요.
그리고 시위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할 수록 더 의미 있고,
이 문제 해결이 앞당겨 지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수요시위가 어떤 의미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은 계속 강경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것에 항의하는 펙스나 멜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할 때에 할머니들에게 명예와 정의를 찾아드리는 날이
앞당겨 질 것입니다.

<a href="http://www.tribunal2000.org" target="_blank"><img
src="http://witness.peacenet.or.kr/image/2000_b_.gif" border=0 alt="2000년 국제법정으로 바로가기">

Next Entertainment, LYCOS
==========
즐겁지 않으면 인터넷이 아닙니다!! http://www.lycos.co.kr
톡톡튀는 아바타 천국 - 라이코스 채팅 (http://chat.lycos.co.kr)
나만의 깜찍한 음악상자 - 라이코스 라디오 (http://radio.lycos.co.kr)